

“겨울엔 따뜻한 광양으로 오세요”

‘남도한바퀴, 광양주말여행’ 내년 2월까지 운영 도립미술관·옥룡사동백나무숲·배알도 등 투어

‘겨울엔 따뜻한 광양으로 오세요’ 광양시는 30일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서는 12월, 따뜻한 겨울을 여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남도한바퀴, 광양주말여행’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남도한바퀴 ‘마음에 쫓겨 찍는 광양주말여행’은 전남도립미술관, 옥룡사동백나무숲, 김 시식지, 배알도 섬 정원 등에서 광양의 따뜻한 겨울 햇볕을 충전하는 감성여행이다.

광양주말여행은 매주 일요일 광주 유스퀘어(오전 8시30분)를 출발해 광주송정역(오전 9시)을 경유해 광양 원도심의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등을 관람한다.

이어 서천변 광양불고기 특화거리에서 점심을 즐긴 후 옥룡사동백나무숲, 김 시식지, 배알도 섬 정원 등 대표 관광지를 투어하고 유스퀘어(오후 6시50분)에 도착하는 낭만코스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이경모 사진전 ‘역사가 된 찰나’ 등 품격 높은 전시로 연일 국내외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는다.

광양예술창고에는 사진가 이경모의 카메라, 사진 등을 볼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이 있어 전남도립미술관 이경모 사진전과 함께 작가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해준다.

서천변 광양불고기 특화거리에서 취향을 살린 따뜻한 점심 식사를 즐긴 후 옥룡사동백나무숲, 김 시식지, 망덕포구의 정병욱 가옥, 배알도 섬 정원 등을 관람한다.

옥룡사동백나무숲은 터만 남은 옥룡사지와 백백하게 둘러선 1만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어울려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실현한 곳으로 겨울 햇살이 한가로운 노니는 곳이다.

광양 김 시식지는 세계 최초로 김을 양식한 역사와 장소를 기리는 공간으로 김이라는 명칭에 얽힌 흥미진진한 스토리 등이 기다리고 있다.

운동주의 육필시고를 간직해 운동주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부활시킨 ‘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은 나라의 소중함과 우정의 가치를 새삼 일깨운다.

2022 한국관광공사 안심 관광지 25선

으로 부상한 배알도 섬 정원은 알짜한 겨울바람을 맞으며 바다 위를 거니는 특별한 공간으로 겨울 주말을 아름답게 각인시켜 준다.

이용요금은 2만4천900원(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이며 온·오프라인에서 예약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안내와 예매는 남도한바퀴 누리집, 남도한바퀴 콜센터(062-360-8502), 남도한바퀴 카카오톡 채널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 겨울 테마 ‘마음에 쫓겨 찍는 광양주말여행’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여행 프로젝트”라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겨울에 가족, 연인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예술, 문학, 역사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햇살 가득 광양주말여행을 계획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양홍렬기자

곡성 옥과면 신흥마을 만들기사업 준공

커뮤니티 중심 역할 ‘홍부자 마을회관’ 조성

곡성군은 30일 “최근 옥과면 신흥마을 만들기 사업을 완료하고 신흥마을회관에서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준공식에는 이상철 군수를 비롯해 김재만 옥과면장, 정문수 안전건설과장 등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옥과면 신흥마을 만들기사업은 2018년 마을만들기 현장 포럼을 시작으로 2019년 전남도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2020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을 통해 신흥마을에는 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입돼 기초 생활 기반 확충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됐다.

마을을 통해 신흥마을에는 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입돼 기초 생활 기반 확충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됐다.

마을을 통해 신흥마을에는 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입돼 기초 생활 기반 확충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됐다.



부자 문화 교실 운영, 마을 가꾸기 등도 추진했다. 이상철 군수는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홍부자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곡성=이호산기자

여수 ‘2022 지역 MICE 여수포럼’ 오늘 엑스포컨벤션센터서 개최

여수시는 30일 “12월 1일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남해안 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MICE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2 지역 MICE 여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전남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이진철 전남관광재단대표이사,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과 시의원을 비롯해 아름다운여수만협회,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여수MICE 서포터즈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여수시립중앙도서관 오픈공원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르네상스만 속의 숨겨진 여수의 비밀’이라는 주제의 기초강연이 진행된다.



담양군은 최근 필리핀 2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필리핀 지자체와 MOU...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담양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은 30일 “지난 7월 필리핀 2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 지역 농가와 연계하는 등 딸기 수확기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29명이 입국해 농가에 배정됐으며 올해 말까지

30여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단비가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에서 온 29명은 사전교육, PCR검사 등의 절차를 마치고 관내 농가에 곧바로 투입돼 약 5개월간 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 친척 계절근로자도 30명이 입국해 농가 일손을 돕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0여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이다.

특히 담양군은 지난 10월 합법적 외국

인 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병호 군수는 “앞으로도 MOU 체결과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 농촌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월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지자체인 나티비다드 시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양 지자체간 우호 협력 및 근로자들과 만남의 장을 가질 예정이다. /담양=정승균기자

화순군, 야구 전지훈련지 ‘각광’

올해만 2천여명 방문...지역경제 활성화 보탬

지난해 화순군과 전남도교육청이 53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이양면 소재 화순야구장이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화순군은 30일 “최근 화순초등학교와 화순야구장에서 초등 야구팀 추계 전지훈련과 화순고인들배 전국초등야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계 전지훈련으로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등 전국 8개 초등학교 야구팀 선수·관계자 등 250여명이 화순군을 찾았다.

군의 적극적인 하계·추계 전지훈련 유치 노력으로 올해에만 2천여명의 선수·관계자가 화순야구장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군은 공인 구역(1만8천㎡)의 야구전지훈련지로 야간 훈련이 가능하고 최고의 훈련 시설이 마련된 점과 훈련장 무료 이용, 심판비 일부 지원 등 훈련활동의 적극 지원이 인기의 비결로 분석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을 ‘체육형 스포츠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스포츠와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안전한 훈련 여건을 조성해 스포츠메카 화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기자

제7기 순천청년정책협의체 위원 공모

순천시는 30일 “청년이 행복한 일류 청년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에 적극 참여할 제7기 순천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30명 안팎으로 연령별, 성별, 도시와 농촌별, 직업별로 다양한 청년을 모집해 청년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 문제와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고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순천시 소재 직장이나 대학(휴학·대학원생 포

함)에 소속돼 있는 청년(만 19-39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2월 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누리집 또는 청년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향후 2년간 ▲순천시 청년정책 모니터링 ▲청년 의견 수렴 ▲청년 정책 발굴·제안 ▲자율적으로 구성된 분과의 구성원으로 청년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순천=남정민기자

토지매매 (담양)

▶ 담양 프로방스 앞

- 임야 : 7,500평
- 용도 : 개발부지, 관광농원, 임산물식재
- 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

- ① 담양 창평면 - 9,000평 (계획관리)
- ② 담양 무정면 - 1,200평 (1종주거지역)
- ③ 장성읍 상오리 (장성댐) 전원주택 (150평)
- ④ 장성읍 아은리 (황룡강면) 전원주택지 (200평)
- ⑤ 장성읍 아은리 전원주택 2층 - 2억3천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경매 실전 교육반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부)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서구 풍암동(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원동(윤슬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산구 하남동(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삼호읍(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농지) ▶ 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

010-2614-9801